

문인들 '문학 전도사'로 나서다

최근 문인들이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문학전도사'로 나섰다.

이들 작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문학집배원'으로 활동하거나 일부는 책을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맹활약 중이다. 기존의 소통방식이 낭독회 등 일부 독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이었다면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한 근래 문인들의 '문학알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다.

시인인 나희덕(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씨와 소설가 김연수씨는 지난 1일부터 문학 전문 인터넷 사이트 문학나눔(www.for-munhak.or.kr)에서 좋은 시와 소설을 독자들에게 소개해 이메일로 보내는 '문학집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문학나눔추진단(단장 박정자·이하 나눔추진단)으로부터 문학집배원으로 위촉을 받은 두 작가는 앞으로 1년 동안 '나희덕의 시 배달과' 김연수의 문장 배달 코너를 운영한다. '문학집배원'은 나눔추진단이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문학나눔사업 일환으로 매주 작가가 독자들에게 엄선한 작품을 이메일로 배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작가들은 자신들이 직접 쓴 작품은 물론 다른 작가들의 시, 소설, 에세이에 해설을 붙여 독자들과 교감을 나눈다.

나희덕 시인은 첫 작품으로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밟며'를 선정해 독자들에게 선사했다. 나 시인은 앞으로 이 성복의 '샘가에서', 신경림의 '나의 산발이', 이장욱의 '동사무소에 가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 '내성당'을 번역해 '번역가'로도 이름을 알린 김연수씨는 조선대 사프란포어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을 시작으로 소설배달에 나섰다. 김씨는 영미권을 비롯 다양한 외국 소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학 집배원' 위촉 나희덕·김연수씨

인터넷 문학 사이트서 시·소설 배달

김애란·장진씨는 '문학 DJ' 맹활약

첫 단편집 '달려라 아비'로 역대 최연소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은 소설가 김애란씨는 문학 방송 진행자로 활약중이다. 김 씨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문학 라디오 방송 '문장의 소리'(http://radio.munjang.or.kr)의 DJ를 맡아 지난달 21일 첫 방송을 했다. 지난 2005년 6월 시작된 '문장의 소리'는 지금까지 시인 김선우, 소설가 한강, 시인 이문재, 소설가 이기호씨 등 여러 문인들이 진행을 맡아왔다.

이 프로그램에는 소설가 박상씨도 독서 일기 형식으로 책을 소개하는 '라디오 만답' 코너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겸 작가인 시인 조연호씨는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까지 선보이는 등 다재다능한 면모를 과시했다.

조선일보 희곡부문 신춘문예(1995년) 출신으로 영화감독 겸 희곡작가로 활동중인 장진씨도 지난달 13일부터 매주 일요일 '라디오 북클럽'(MBC FM 95.9MHz·오전 7시10분)의 진행을 맡아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고 있다. '라디오 북클럽'은 신간과 명사들의 추천도서를 소개하고 오디오 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소설가 장정일씨는 올 1월부터 책 뉴스 사이트 '북데일리'(www.bookdaily.co.kr)에 '장정일의 희곡나라'를 연재하고 있다. 다른 문학 분야에 비해 다소 소외돼온 한국의 희곡작가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 문화예술 활동 새로운 길찾기

16~17일 광주서 '2008 문화예술단체 활동가 포럼'

전국 문화예술단체 활동가들이 광주에 모여 지역 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광주·전남문화연대는 12일 '예술단체 활동가 포럼'을 16~17일 광주영양예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문화연대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진진단, 시청자 미디어센터 등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 예술단체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새로운 길 찾기'를 주제로 각 지역 우수문화 사업을 소개하고, 지역 간 문화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 활동의 새로운 방향과 전망 ▲시민사회와 문화예술 활동의 문화적 접근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 찾기(사례 발표) ▲문화예술 교류과 지역 문화의 활성화 방안 ▲문화 향유 확산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위한 지역문화시설의 활성화 방안 등 5개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전효관 교수, 광주민족예술지도회장, 지역문화네트워크 김기봉 공동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 대구문화예술연구소 신동호 소장 등이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16일 한국마임협회 조성진 회장이 진행하는 '페포먼스 토크' 마임 공연(오후 7시 히딩크 호텔)이 열린다. 또 행사 기간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전국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전시회도 개최된다.

광주·전남문화연대 김지원 사무국장은 "이번 포럼은 광주가 전국 문화예술 운동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맞춰 아시아지역 문화예술 활동가 포럼 등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진경산수의 일탈

한국화가 백현호씨 열번째 개인전

15~21일 대동갤러리

한국화가 정산(丁山) 백현호씨가 15~21일까지 광주 대동갤러리에서 열번째 개인전을 연다.

30여 년간 붓을 잡아온 백씨는 이번 전시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진경산수와 추상화를 넘나드는 독특한 한국화를 선보인다. 백씨는 영암 월출산, 나주 덕룡산, 강진 만덕산 등 남도의 산을 화폭에 풀어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붉은 길과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산자락이 서로 겹쳐면서 추상화 분위기를 낸 것이 특징. 앞선에 가려 보이지 않아야 할 빛산자락을 선명하게 그려 진경산수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환상적인 세계를 느끼게 해준다.

이밖에 과감하게 붉은 색을 풀어, 단



'天. 地. 人-산 그늘에 들다'

풍에 물든 가을 산을 표현한 '월출의 가을' '설악 공룡 능선' '주자산' 등의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백씨는 전남대 미술학과와 대구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한국화 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전통과 현대화, 창작회, 현대 사생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

제53회 호남예술제 본선 진출자

피아노 3·4학년

67 이승연(대자4)	147 허 평(진월3)
71 김형철(문흥4)	148 이하영(광주선창4)
73 이우향(봉선4)	149 박상욱(서광4)
74 박시은(광주교대목	152 신현지(진월3)
포부설4)	156 양진신(광주학덕4)
75 노수빈(일곡4)	159 오해련(광주월봉4)
77 한제윤(광주남4)	161 박소진(광주학덕4)
80 이은재(광주서3)	164 황인해(신암3)
81 이체훈(정암4)	165 박혜림(광주학덕4)
82 이승찬(서일4)	166 이도희(월곡4)
9 김수하(선창3)	168 임소정(화개3)
12 최휘연(광주교대광	169 박소민(광주학덕3)
주부설4)	170 조경현(광주장원4)
13 노유빈(선창4)	171 박영송(광주월봉3)
14 김예빈(서일4)	174 김사강(광주학덕3)
17 장승일(선창3)	178 나희민(봉산3)
20 나세린(금부3)	182 정은정(일신4)
22 이성재(광주학운4)	186 백승희(운리4)
23 최환우(광주선창3)	190 주민지(봉산3)
29 빙우정(본촌4)	201 배도희(용주4)
31 김선주(불로4)	202 정민주(동립3)
32 정희호(광주문화4)	204 진형섭(일신4)
33 이다은(봉산3)	207 장해민(광주남4)
34 김명준(광주남3)	208 윤희주(광주교대광
36 전현정(광주문화4)	주부설3)
37 김주리(목포부영4)	214 박재정(오치4)
38 박수안(봉산3)	219 나연주(광주풍향4)
39 박수진(각화4)	222 심규리(광주풍향4)
40 최은하(화정남4)	223 이여준(미산3)
41 김하민(정암4)	225 박민서(목련3)
43 장세운(광주풍향3)	226 김정호(미산4)
46 서금정(순천연향4)	※ 위 순서는 예선경연
53 이수현(녹동4)	순서이며 발표된 순서에 의
55 이신화(광주학운3)	해 본선 경연을 합니다. 본
61 김시령(광주학운4)	선은 5월 25일(일) 오전 11
62 이지담(하남중원4)	시부터 호남신학대학교 예
63 조주희(용두3)	음홀에서 진행합니다.
66 유자현(광주동운3)	

이상록씨 독주회

14일 일곡도서관·광주시청



정주 가곡의 향연

14일 일곡도서관·광주시청

광주 출신 음악인으로 카자흐스탄 민족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는 정주 선생(시진)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린다.

지난해부터 교향곡, 실내악, 가곡 등 정주 선생의 음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문화신포니에티(단장 정병열)는 14일 광주 일곡도서관 강당(오전 11시)과 광주시청 회의실(오후 6시30분)에서 두차례 '정주 가곡의 향연'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소월의 시에 곡을 부친 '금잔디', '가는 길', 정주 선생이 직접 가사를 쓴 '여기가 살기 좋은 고향이란네', '발하스 어부 타령' 등을 들려준다. 전석 무료.

문의 011-645-11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10회 일시 시네마

14일 드맨아트홀

피아니스트 이상록씨는 지역에서 가장 자란연 연주가 중 한명으로 꼽힌다. 실내악 양상을 공연이나 단체 합동 공연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성악가들의 반주자역을 맡아 드든한 파트너로도 무대에 선다.

이씨가 이번에는 자신만의 연주를 모아 독주회를 마련했다. 14일 오후 7시30분 드맨아트홀.

이 씨는 이번 공연에서 슬라브 민요의 애조 띤 음조가 인상적인 차이코프스키의 '돌카 op. 59', 모차르트의 '판타지 D 단조 K 397', 멜빌스존의 피아노소곡집인 '무언가 op. 53', 보르딘의 '작은 조곡' 등을 들려준다.

조선대 음악교류과와 러시아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이 씨는 현재 조선대에 출강중이다. 문의 062-651-41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한국시청 영화시청·예매: www.joycbo.com/1588-7941

생활하는 영화관 ·www.cinus.co.kr/1544-0070

고객시청 고객김동·www.hamicinema.co.kr/1588-8120

시네마 7기·www.primuscinema.com/www.jallicinema.co.kr

제10회 일시 시네마

총장로 3가 VARS 전화예매 227-1980♡

1관 아이언 맨 (124)

2관 포비든 킹덤 (124)

3관 테이큰 (184)

4관 삼국지-옹의부활 (154)

5관 아이언 맨 (124)

6관 가루지기 (184)

7관 테이큰 (184)

8관 스피드레이서 (124)

9관 포비든 킹덤 (124)

10관 흐른 (전체)

*5000원 넓은 주차장(3시간기준) · 385 매일 심야

*이동 푸드차 & OK 카페 키친 레스

* 히미 수영장 265-5757 · 히미 블링킹 262-0925

* 히미 골프장 251-5060 · 영민관 애식점 261-2000

ARS 전화예매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일호 히말라야주차장)

단 일정권 구매 고객에게 할인

</div